

토양과 비료

- 화학비료에 대한 오해 -

자료 : 한국토양비료학회의 토양과 비료중에서
한경대학교 이상은 교수 기고 내용 인용

머릿말

혹자는 화학비료를 20세기 과학이 낳은 가장 좋은 발명품중의 하나라고 말하기도 한다.

실제적으로 화학비료는 금세기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지구의 인구 부양능력을 크게 증가 시켜왔다. 화학비료가 공급되면서 저 개발국가의 식량생산은 획기적으로 증가될 수 있다. 북한의 식량부족도 화학비료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좋은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화학비료가 마치 환경오염의 주범인양 호도(糊塗)되고 있다. 물론 화학비료의 남용은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은 약이 좋지만 남용하면 인체에 해가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이다. 그러나 화학비료를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사용하기만 하면 비료의 화학적 조성에 비추어 생태계에 큰 해를 주지 않으면서 인류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은 일반국민 사이에 만연되고 있는 화학비료에 대한 그릇된 상식들을 짚어 보고, 토양비료를 전공하지 않은 분들의 화학비료에 대한 오해를 풀어줄 목적으로 기술하였다.

본론

1. 환경농업을 하려면 화학비료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

요즈음 화학비료를 배제시키고 유기질 비료만을 이용하는 순환농업에 관심을 가지는

